

[교육]

2009학년도 수시 1학기 대비책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학별 전형 찾아라

2009학년도 대입 수시 1학기 모집이 7월 14일부터 전국의 81개 대학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전체 정원은 지난해에 비해 2천456명이 줄었고, 학교 수도 10개나 감소했다.

과하다. '올인'해선 안 되는 이유다. 수시 1학기 전형 기간이 수능 준비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수시 1학기에 승부수를 걸었다면 실재한다면 이에 따르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수시 2학기·정시 유리하면 계획대로 공부

대학별 전형을 파헤쳐라

수시 1학기 전형을 실시하는 상위권 및 중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일반전형이 아닌 적성평가 우수자(가톨릭대), 국제학부 전형(고려대·한양대), 수학·과학특기자 전형(포항공대) 등 특별전형을 적용, 소규모 선발을 하고 있다.

의 잠재적우수자 전형 등도 눈에 띈다. 이들 전형은 생소해서 낮은 경쟁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동일한 전형 유형이라도 대학마다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을 염두에 둔 대학의 전형 유형과 방법을 자세하게 검토해야 한다.

수시에 '올인'하지 말라

수시 1학기 모집에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이후 전형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수시 1학기에서는 자신의 지망 전공을 위주로 소신 지원하는 것이 좋다. 3~4개 정도의 대학에 복수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희망 대학의 정시 모집 합격 가능성이 모의고사 성적 변화나 학습 패턴 등을 토대로 예측한 뒤 하향 지원하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모든 채널로 정보를 수집하라 수시 1학기는 학생부와 대학별 고사로 합격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단점이 있다. 또 전형 유형이 다양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 및 학과에서 반영하는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등에 대한 철저한 정보 수집이 더 절실하다.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지원하려는 대학의 홈페이지와 여러 입시사이트는 물론 학교 선생님의 조언 등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어야 한다.

특히 대학 홈페이지는 수시로 접속해 새로운 요강이 올라오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다. 전형계획만 믿고 준비하고 있다가 최종 요강의 내용이 변경돼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종 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건국대의 KU입학사정관전형, 가톨릭대

수시 1학기는 긴 대입 여정의 시작에 불



광주 유덕중 학생들이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의 심폐지구력 검사인 페이스(왕복달리기)를 하고 있다.

초·중·고교 '체력장' 확 바뀐다

내년부터 비만 등 관리 '건강체력평가시스템' 도입

여학생이 철몸에 매달려 공공대는 모습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체력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르면 내년부터 초·중·고교에 학생들의 체력은 물론, 건강과 비만 등까지 관리가 가능한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14일부터 전국 81개대학 일제히 실시

Table with columns: 수시1학기 대입 전형일정 및 유형별 모집현황, 원서접수, 전형일,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 구분, 전형유형, 대학수, 모집인원. Includes sub-tables for 일반전형, 특기자, 대학별, 독자적 기준, 특별전형, 취업자 등, 정원의 특별전형.

전남대·목포대 등 전국 17개 대학 '대학과목 선이수제' 교육기관 선정

전남대와 목포대 등 전국 17개 대학이 고등학생에게 방학 동안 대학의 학점을 얻은 뒤 대학 입학 후 활용할 수 있게 한 '대학과목 선이수제(UP)'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수확경시대회 대상 광주 비아중 이근동군 문제 풀릴때까지 매달리는게 비법 수학·과학서적 많이 읽었어

"풀릴 때까지 매달리는 게 노하우죠." 성공관대 주 최하는 전국 영학·수확경시대회에서 중학생 2학년 수학 부문 대상을 차지한 광주 비아중 이근동(14)군의 수학 공부 비결이다.



이 군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수학에 흥미를 느꼈다. 이유는 간단하다. 문제의 답이 딱 떨어지고, 답을 해결했을 때의 희열이 굉장하기 때문이다.

HYUNJIN 투자의 빛이 되겠습니다! 수완 신도시 현진에버빌 단지내 상가 특별 분양! 1단지 672세대 2단지 509세대 현진에버빌의 품격과 미래가치 이제 단지내 상가로 이어집니다.

地友 부동산컨설팅 본선동 남구청앞 슬퍼타운 상가 ☎ 062) 655-0063 011-9609-9500 ◆ 믿음, 신뢰,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동산

대승공인중개사 062)954-7700, 010-9468-7959 수완 지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전문

생계형, 음식, 호프, 꼬치구이 전문 컨설팅 한국부동산 공인중개사 062-374-2860 · 010-9115-4467 기획·매뉴개발·매각상담·경영컨설팅·인테리어